

先進國 特許廳의 公衆閱覽室

—美國, 西獨, 日本을 中心으로—

陳 今 燮

〈特許廳 審査擔當官〉



Ⅰ 概 說

萬國工業所有權協約인 파리條約 12條 1項에 「各加盟國은 工業所有權에 관한 特別한 機構인 獨立廳을 設立함과 同時에 發明特許, 實用新案, 意匠 및 商標를 公衆(the public)에게 閱覽시키기 위하여 公衆閱覽室인 中央資料館을 設置해야 된다」고 明示된 바와같이 特許制度의 運用에 있어서 特許行政機構를 독립청으로 하는 것과 公衆閱覽室 設置는 마치 수레의 兩바퀴와 같이 重要한 것이다.

一般적으로 先進技術에 대한 充分한 資料調査 없이 特許될 수 있는 出願이 申請될 수 없으며 또한 國內외의 충분한 자료없이 올바른 審査가 이루어졌다고 認定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같이 特許資料(patent documents)의 生産, 蒐集, 整備, 管理業務의 發達程度에 따라 그 나라 特許制度의 發達程度를 測定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 자료는 特許制度發達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난 3月30日 지금까지 商工部 한키통이에서 근근히 命脈을 維持해온 特許局이 廳으로 昇格됨에 따라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公衆閱覽室의 重要性에 비추어 美國, 西獨, 日本등 先進國의 公衆閱覽室의 現況과 實態를 살펴보는 것은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Ⅱ 美國의 Public Search Center (公衆閱覽센터)

特許廳舍의 本建物 1,2層에 자리잡고 있는

世界最大의 特許資料閱覽室이다. 閱覽室入口에는 初代 特許廳長이던 「제퍼슨」前美國大統領의 銅像과 오래된 特許品 見本이 많이 展示되어 있고 壁에는 에디슨, 벨과 같은 有名한 發明家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 처음 訪問客의 눈길을 끌고 있다. 大講堂같은 홀에 나무冊床과 椅子들이 秩序整然하게 配列되어 있고 周圍에서 複寫機와 마이크로필름 리드프린터가 數十臺 있어 所定의 料金만 支拂하면 누구나 複寫할 수 있으며 無料로 micro film reel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1890年 以後 發行된 400萬件以上의 特許公報와 40여개국에서 오는 特許文書를 合하여 모두 約 1,200萬의 특허문서를 所藏하고 있어 名實共히 世界最大 技術情報의 寶庫이다.

그리고 特許査定된 包袋와 拒絕査定된 포대가 備置되어 있어 이미 處理된 審査進行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든 특허문서는 431大分類(이중 30여개가 缺番임), 7,000 中分類, 85,000 小分類로 整理되어 있고 外國分(佛, 西獨, 日등 27개국)은 翻譯士가 있어 要旨만 번역하여 역시 美國分類로 분류정리되어 있다. 또한 1931년에서 現在까지 특허된 모든 發明者와 權利讓渡者의 이름이 알파벳順으로, 특허된 日字順으로, 中分類別로 cross index가 만들어져 있어 이 중 한가지만 알면 다른 것은 바로 알 수 있도록 資料閱覽이 아주 便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500여명의 많은 閱覽者가 하루종일 앉아서 조사하고 記錄하므로 閱覽席의 木材 冊床面이 마치 깔도마와 같이 흠이나 있는 것이 딱 印象의이며 마침 筆者가 그곳에서 우리 僑胞 한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大石油메이커인 액슨社의 研究員으로 있으면서 1

週일에 한번씩 이 열람실에 와서 自己研究分野의 世界特許現況을 點檢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것을 볼때 앞으로 모든 企業은 당연히 自己事業分野에 해당하는 世界的인 技術開發의 推移를 특허청의 國內外 特許資料에 의하여 注意깊게 觀察 評價하여 이에 대한 對策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③ 西獨의 Documentations forschung und entwicklung (資料調查閱覽室)

西獨역시 특허청(문헌所在)正門入口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1層과 地下에 자리잡고, 베를린分局(옛날의 특허청)에도 1층과 지하에 공중 열람실이 있으며 이 두곳은 모두 천정을 透明플라수틱으로 하여 아주 밝고 明快하게 꾸며져 있다. 열람실 둘레에는 코닥제 마이크로필름 리더 프린터가 있어 마이크로필름에 의하여 쉽게 조사(search)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든 분류는 지금까지 써 오던 物品名을 알파벳순으로 하던 西獨固有의 분류방식을 廢止하고 1971년 9월13일부터 國際特許分類(IPC)를 採用하고 있다. 따라서 그 以前의 모든 특허자료를 이 IPC로 分類整備하였고 아주 옛날 것은 特許請求範圍만 스크랩하여 再分類해서 一般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기는 西獨 Siemens社가 開發設置했다는 vacuum system이라는 자료배달파이프가 지하열람실로부터 각층에 연결되어 있어 審査官등이 複寫資料를 요청할 때 이를 복사하여 조그마한 통에 넣고 目的하는 층의 단추番號만 누르면 이 파이프를 타고 순간에 목적하는 층까지 送達되므로 원하는 자료를 自動으로 迅速히 볼수 있게 되어 있다.

西獨特許는 公開(Offenlegung, 黃色), 出願公告(Auslegtschrift, 綠色), 特許査定(Erteilungsheschluss, 白色)公報가 發行되어 公開公報만 마이크로필름化하여 頒布資料로 열람되고 있으며, 美, 日과 같이 發明人, 名稱, 類別로 정리되어 cross-index가 만들어져 있어서 찾아보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특히 商標는 各會社別, 알파벳, 글자數, 글자와 圖形商標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商標登錄時 資料調査에 완벽할 수 있고 競爭會社의 登錄된 모든 상표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곳도 1日平均 500여명의 열람자가 하루종일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實情인데 日本의 대기계류 메이커의 西獨駐在支店에서는 1명씩의 女職員을 주로 이 公衆閱覽室에 파견하여 資料調査員으로 활약시킨다는 이야기를 直接 本人들한테서 들었다. 특히 기계계류에서 서독특허청은 유럽뿐만 아니라 全世界의 技術情報임을 다시 한번 實感하면서 우리 特許廳閱覽室에도 머지않은 將來에 外國調査員들이 常駐하는 날이 오리라고 期待해 보았다.

④ 日本의 萬國工業所有權 資料館

1952년에 설치한 特許廳附屬機關으로서 特許廳 別館 1層에 자리잡고 68명의 職員이 從事하고 있다. 모든 기술정보의 複寫등 實質的資料의 配給에 있어서는 日本技術情報센터인 JAPATIC에서 主管하고 있으므로 純粹한 특허자료의 열람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明治18年以後 國內公報가 發行順, 分類別로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世界主要 53個國의 外國特許公報를 所藏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index도 蒐集되어 公衆이 열람시에 活用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先進 17個國은 當該國 分類別로 정리되어 있다. 세계 어느나라 못지않게 特許制度의 활용으로 經濟科學富國을 이룩하여 特許王國이라고 自負하는 이들이기에 JAPATIC, 發明協會, 特許協會등에서 直接 間接으로 특허자료를 공급받고 있지만 이 萬國資料館에 하루에 거의 400여명의 많은 열람자가 모인다하니 이들의 發明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特記할 것은 全國에 約 4,700會社에 특허공보를 보급해 주고 있으며 大學 試驗所등 109個所와 公共圖書館, 發明協會支部, 商工會議所등 133個所, 合計 242個所에 國內公報를 交付해 주어 全國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制度的으로 열람서비스업무를 擴張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도 制度的으로 各道廳所在地등 大都市의 商工會議所나 道立 또는 市立圖書館에 國內公報를 業種別로 分類 備置하여 열람시키는

特 輯

것도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이때 效果의 일 것으로 생각된다.

⑤ 結 言

一般的으로 특허청의 공중열람실이란 첫째로 그 나라에서 어느 도서관이나 어느 研究所 못지 않게 국내공보나 外國公報 등, 모든 특허자료를 發行年度別, 分類別 등으로 분류, 정리, 비치하여 옛날것이나 最新것이나를 莫論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기술개발이나 특허에 관계되는 모든 최근의 圖書, 雜誌, 定期刊行物 등으로 蒐集, 分類, 保管하여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로 우리 特許法에도 規定되어 있는데로 모든 公告 또는 處理包袋를 保管하여 손쉽게 閱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定義해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開發途上國에서 新生 先進國 隊列로 발돋움 하는 이때에 工業發展과 더불어 特許出願數가 늘고 기술의 多樣化로 特許紛爭의 熾烈度가 더욱 높아질 趨勢인데 特許出願時부터 充分하고도 正確한 資料調査가 先決問題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우리 열람실에서 조사하여 새로운 것이면 특허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열람실의 內實을 갖추어 가고 있다.

우선 特許廳 創設以來 發行된 모든 국내 공보를 현재의 분류에 맞게 아주 細分類로 再分類하여 產業體에 공급하고 공중이 쉽게 조사할 수 있게 하는 作業이다. 日本, 美國公報만이라도 最少限 그나라 방식(日本分類는 우리나라와 同一함) 대로 분류, 정리하여 이들 공보가 국내에 到着하는 즉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일이며, 또한 현재의 특허자료의 機械化計劃에 따라 日本 特許資料의 마이크로필름과 리드 프린터를 發注하고 특허제도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國際特許資料情報機構인 ICIREPAT(各國 特許廳間의 情報檢索에 관한 國際協力을 위한 PARIS 同盟委員會)나 INPADOC(國際特許資料센터) 또는 Derwent Publication Ltd.(美, 英, 西獨, 日 등 9 個國 特許抄錄誌發刊) 등과 긴밀한 紐帶를 模索하는 一連의 作業들이 착착 進行되고 있다.

특허제도에 있어서 공중열람실의 역할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先進諸國에서 이의 內實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그래도 未 洽한게 많다고 담당자들은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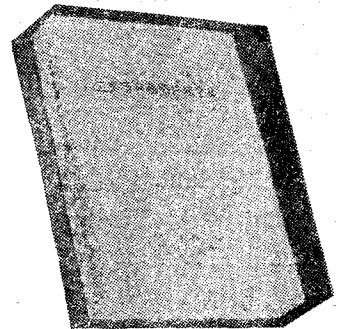
이와같이 이 事業은 엄청나고 어려운 점이 많으며 많은 시간이 所要되는 것이다. 꾸준한 忍耐로 우리 特許廳閱覽室을 찾는 人波가 長蛇陣을 이를 날을 기다려 본다. ※

新 刊 案 內

韓國特許協會 編

改正 工業所有權關係法令集 (1977. 6. 1)

- | | |
|------------|------------------|
| ◎ ◇ 特 許 法 | ◇ 特許庁 職制 |
| 主 ◇ 實用新案法 | ◇ 公務員職務發明 補償規程 |
| 要 ◇ 意 匠 法 | ◇ 辨理士法 |
| 內 ◇ 商 標 法 | ◇ 工業所有權 保護協定國 一覽 |
| 容 ◇ 發明保護法 | ◇ 파리協約 |
| ◎ ◇ 各法 施行令 | ◇ WIPO協約 |



— 總 518面, 4 · 6 版, 洋裝製本 —

限定部數發行으로 先着順 實費 配本

서울 中區 葦洞 2街48-20
TEL. 25-2830, 26-5978